

정신과 외래 여자환자의 학대경험과 해리증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김 종 원

= Abstract =

Levels of Dissociation and Histories of Reported Abuse among
Women Psychiatric Outpatients

Jong-Won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sociative levels and histories of reported abuse among women psychiatric outpatients.

Methods : The author observed the dissociative levels and histories of reported abuse of the 66 women outpatients who visited psychiatric clinics, and compare dissociative symptoms of women who reported the history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symptoms of the others who did not have such history.

Results : Results are as follows :

1) 54.5% of the other 66 outpatients of psychiatric clinic reported the history of abuse, including 13.6%, 24.2% and 16.7% of them reporting sexual abuse, physical abuse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respectively.

2) Scores on the DES of abuse group was 18.6 ± 16.3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DES of the non-abuse group(7.09 ± 7.10).

3) Scores on the DES was highest in sexual abuse group, followed by physical abuse group and then physical and sexual abuse group. The percentile of score on the DES above 25 which was considered the score of dissociative disorder 44.4% of sexual abuse group, 18.8% of physical abuse group, 18.2%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group, and 3.3% of non-abuse group.

4) Scores on the DES was variable according to the age of first abuse. It was highest in 7~11 years old group, followed by 12~16years old group, and then above 16years old group.

Conclusion : Sexual and physical abuse, especially sexual abuse, appears to be responsible for dissociation, or at least to be a precipitating factor of dissociative experience.

KEY WORDS : Sexual abuse · Physical abuse · Dissociation.

시 론

Freud는 1896년 여성에 있어서 아동기 성적 학대가

나중에 정서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

였다. 그러나 후에 환자들이 진술하는 성적 학대가 실제 사건보다는 환상일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되어,

환자들의 학대경험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학대의 빈도 및 그의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²⁻⁶⁾. 실제 임상에서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많은 성인 환자들의 학대 경험이 간과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환자들은 그러한 학대 사실을 특히 성적 학대일 경우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의사와 의논하기를 주저한다. 의사들 역시 이러한 학대경험이 현재 환자의 증상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과 환자의 신체적 성적 학대력은 43~7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¹⁸⁾. 더욱이 이러한 학대를 당했던 경우 숨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학대당한 경험률은 매우 높다 하겠다.

이러한 학대와 정신과적 문제와 관하여 많은 연구가 행하여졌으며, 신체적 및 성적 학대 특히 아동기 학대가 불안, 우울, 낮은 자존심, 자기 파괴행위, 해리, 물질 남용, 식이 장애, 다중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등과 관계 있다고 한다¹¹⁾¹²⁾¹⁴⁻²⁴⁾. 이중 해리현상과 학대경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근래들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해리현상은 일반성인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²⁵⁻³⁰⁾으로, 해리 증상을 겪는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해리현상과 관계있는 정서장애나 불안장애같은 정신과적 일차 진단을 가지기 때문에 해리장애진단은 흔히 내려지지 않으며, 해리증상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어 학대와 해리장애와의 관계를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해리경험척도(Dissociation Experience Scale : 이하 DES)³³⁾를 이용하여 해리증상의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학대와 해리증상이 관계있음을 보고하였다¹¹⁻¹⁴⁾¹⁷⁾³⁷⁻⁴³⁾. 그러나 아동기 성적 학대의 후유증으로 해리현상을 비전형적인 것으로 보거나⁹⁾, 아예 관찰할 수 없었다는 보고⁴⁴⁾⁴⁵⁾도 있어 학대경험이 해리현상을 유발함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겠다.

그리하여 저자는 성인 외래환자중 여자환자에서의 신체적 및 성적 학대력과 해리증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여자 외래환자에서 DES를 이용하여 전술한 연구들에서도 행해진 바 있으며,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외래를 더 많이 찾으며 아동기 성적 학대를 남자보다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¹⁰⁾⁴⁶⁾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 정신과 외래를 초진 방문한 18~60세인 성인 여자환자로, 이중 판단상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정신분열증, 편집장애, 비정형 정신증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와 기질성 뇌증후군 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학대경험에 대한 진술이 환상일 가능성등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모든 검사를 완성한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4.03±8.93세이었으며, 교육 정도는 고졸이상이 73.72%였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77.27%였다. 이들의 정신과적 진단은 DSM-IV³²⁾에 의해 내렸으며 불안 장애, 우울 장애, 신체형 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적응장애등이었다.

2. 연구 방법

대상환자 초진시 나이, 학력, 결혼상태, 종교, 직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해리경험척도(DES)를 조사하였다. DES는 Bernstein과 Putnam(1986)³³⁾이 고안한 해리증상 경험척도를 연규월과 우행원(1994)⁹⁾이 변안한 것을 저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경험정도를 0에서 100%로 나누어 10cm선상에 그리도록 만든 것으로, 이를 자로 mm를 재서 평균치를 내었다. DES는 박제민 등(1995)⁴⁷⁾에 의하여 표준화가 시도되었으며, 해리증상을 선별하거나 해리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연구도구로 유용하다고 한다. DES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학력군의 점수가 고학력군의 점수보다 높다고 한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경험을 초진일을 비롯하여 수회 면담에 걸쳐 조사하였다. 초진시 환자의 불안이나 우울증상이 심한 경우, 또는 환자가 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는 2회나 3회 때로는 더 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졌다. 조사 방법은 먼저 Bryer등(1987)⁸⁾이 고안하고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한 Life Experiences Questionnaire¹⁰⁾¹¹⁾⁴⁶⁾를 저자가 번안 수정하여 만든 질문지를 면담시에 주어 답변하게 하였으며 학대경험을 보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면담을 더 시행하였다.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 학대당한 횟수, 학대당한 기간, 학대당한 시기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Minita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인구학적 조사를 paired t-test 및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고, DES점수를 학대경험에 따라 여러군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과

1. 학대 경험

대상환자 66명중 9명(13.6%)이 성적학대, 16명(24.2%)이 신체적 학대, 11명(16.7%)이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즉 30명(45.5%)을 제외한 36명(54.5%)이 학대당한 경험을 보고하였다(Table 1). 학대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나이는 각각 32.03 ± 8.89 , 37.13 ± 8.27 세로 비경험군의 나이가 많았다(paired t-test, $p < .05$). 그외 교육, 결혼상태, 종교, 직업, 진단 분류는 Table 2와 같으며 양군의 차이는 없었다.

신체적 학대를 처음으로 당한 나이의 평균($\pm SD$)은 17.0 ± 7.1 세이었으며, 성적 학대를 처음으로 당한 나이의 평균은 16.1 ± 6.43 세이었다. 신체적 학대를 보고한 28명중 7세이전이 3명(10.7%), 7~11세가 7명, 12~16세가 3명으로 13명(신체적 학대군의 48.2%)이 16세 이전 신체적 학대를 보고하였다. 성적 학대를 보고한 20명중 3명(15.0%)이 7세이전에 성적 학대를 당한 바 있으며 7~11세가 2명, 12~16세가 4명으로 9명(성적 학대군의 45.0%)이 16세이전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는 16세 이전에는 아버지(9), 어머니(3), 오빠(3), 삼촌(2)으로 5명은 2사람이상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16세이후에는 남편(13), 아버

Table 1. The rates of subjects according to history of physical and sexual abuse(N=66)

History	N(%)
History of abuse	36(54.5)
Physical abuse	16(24.2)
Sexual abuse	9(13.6)
Physical and sexual abuse	11(16.7)
No history of abuse	30(45.5)

지(4), 시부모(2), 어머니(1), 선배(1)로, 이중 10명은 2사람이상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으며 학대시기와 관계없이 주로 아버지, 남편등 가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는 없었다.

16세 이전 성적 학대당한 9명의 가해자는 삼촌(2), 사촌오빠(2), 오빠(1) 형부(1), 오빠친구(1), 친구오빠(1), 계부(1), 남자친구(1), 모르는 사람(1)이었다. 이 중 3명은 여러명에게 당했다고 하였다. 16세 이후 성적 학대를 보고한 11명의 가해자는 남자친구(6), 남편(4), 직장동료(2), 동네사람(1), 오빠친구(1), 모르는 사람(3)이었으며, 이중 5명은 2명이상에게 당한 적이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N=66)(%)

Variables	Abuse (N=36)	None (N=30)	Total (N=66)	χ^2
Age (Mean \pm S.D.)	32.03 ± 8.89	37.13 ± 8.27	34.35 ± 8.93	
Education				9.167*
Elementary	5(13.9)	1(3.3)	6(9.1)	
Middle	10(27.8)	2(6.7)	12(18.2)	
High	13(36.1)	13(43.3)	26(39.4)	
College	8(22.2)	14(46.7)	22(33.3)	
Marriage				3.778*
Unmarried	8(22.2)	3(10.0)	11(16.7)	
Married	26(72.2)	25(83.3)	51(77.3)	
Divorced	1(2.8)	1(3.3)	2(3.0)	
Widowed	1(2.8)	1(3.3)	2(3.0)	
Religion				0.878*
Protestantism	12(33.3)	11(36.7)	23(34.9)	
Catholicism	5(13.9)	6(20.0)	11(16.7)	
Buddhism	4(11.1)	2(6.7)	6(9.1)	
None	15(41.7)	11(36.7)	26(39.4)	
Occupation				1.100*
Employed	14(38.9)	8(26.7)	22(33.3)	
Unemployed	22(61.1)	22(73.3)	44(66.7)	
Diagnosis				4.858*
Anxiety disorders	17(47.2)	12(43.3)	30(45.5)	
Depressive disorders	10(27.8)	9(30.0)	19(28.8)	
Somatoform disorders	2(5.6)	6(20.0)	8(12.1)	
Others	7(19.4)	2(6.7)	9(13.6)	

Abuse=Reported history of abuse

None=No Reported history of abuse

*Non-Significant after Chi-square test

고 하였으며 남편에 의한 경우는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 후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였다.

2. 학대 경험과 해리증상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군의 해리증상점수는 18.6 ± 16.3 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없는 군의 DES점수 7.09 ± 7.10 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aired t-test, DF=49, $p < 0.0005$). 이를 다시 학대양상에 따라 세분하여 보면, 성적 학대군 23.73 ± 17.96 , 신체적 학대군 17.71 ± 19.12 ,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 15.58 ± 9.41 로 학대 비경험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적 학대군의 척도가 가장 높고, 신체적 학대군,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 순서였다. 다중비교에서는 성적 학대군과 신체적 학대군이 학대 비경험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학대군 각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Table 3).

DES점수를 정상인 평균 점수로 생각되는 4.4이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평균점수인 31.3이상 및 다중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53.1이상의 점수³³⁾를 나타낸 비율을 살펴보았다. DES점수 31.3이상의 비율이 성학대 경험군은 22.2%, 신체적 학대 경험군은 12.5%,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은 9.1%인 반면 비경험군은 0%로 해리장애가 의심되는 점수를 학대경험군에서만 나타냈다. 또한 정상인 평균점수인 4.4이하는 학대 비경험군이

50%인데 반하여 성적 학대군 22.2%, 신체적 학대군 12.5%,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 9.1%였다(Table 4). 그리고 해리장애 진단 절단점으로 주장되기도 하는 DES점수 25점이상²⁸⁾인 수는 학대 비경험군은 1명(3.3%), 성적 학대군 4명(44.4%), 신체적 학대군 3명(18.8%),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 2명(18.2%)로 학대군 특히 성적 학대군의 해리증상이 높음을 보였다(Chi-square test, $p < 0.05$).

학대를 처음 당한 시기에 따른 DES점수는 Table 5와 같다. 즉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7세 이전이 12.43 ± 10.60 , 7~11세 27.55 ± 14.35 , 12~16세 21.83 ± 8.67 , 17세 이상 18.66 ± 16.82 로(전체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19.33 ± 13.42) 성적 학대를 당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 < 0.05$), 7~11세 학대 경우 가장 높은 척도를 보였고 12~16세, 17세 이상, 7세 이전의 순서로 높았다. 기억에 확실치 않은 7세이전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 나이의 학대가 해리경험척도와 더 관계있었다.

또한 신체적 학대경험을 보고한 27명의 DES점수는 16.82 ± 15.71 로 신체적 학대 비경험군의 10.93 ± 12.52 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다소 높은 척도를 보였으며, 신체적 성적 학대를 모두 경험하지 않은 학대비경험군의 7.09 ± 7.10 에 비하여는 유의하게

Table 3. Mean scores on the DES according to reported history of abuse(N=66)

DES ¹⁾ score	SA ²⁾ (N=9)	PA ³⁾ (N=16)	BOTH ⁴⁾ (N=11)	NONE ⁵⁾ (N=30)	F
Mean±S.D.	$23.73 \pm 17.96^*$	$17.71 \pm 19.12^*$	15.58 ± 9.41	7.09 ± 7.10	4.97
Range	2.9~58.9	0.5~81.7	3.0~37.7	0.0~26.6	

1) DES=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2) SA=Sexual abuse

3) PA=Physical abuse

4) BOTH=Physical and sexual abuse

5) NONE=No abuse

* $p < .005$ vs NONE(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was used)

Table 4. Stratified DES score according to reported history of abuse(N=66)

DES ¹⁾ score	SA ²⁾ (N=9)	PA ³⁾ (N=16)	BOTH ⁴⁾ (N=11)	NONE ⁵⁾ (N=30)	Total(n=66)	(%)
0~4.4	2(22.2)	2(12.5)	1(9.1)	15(50.0)	20(30.3)	
4.5~31.2	5(55.6)	12(75.0)	9(81.8)	15(50.0)	41(62.2)	
31.3~53.0	1(11.1)	1(6.3)	1(9.1)	0	3(4.6)	
above 53.0	1(11.1)	1(6.3)	0	0	2(3.0)	

1) DES=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2) SA=Sexual abuse

3) PA=Physical abuse

4) BOTH=Physical and sexual abuse

5) NONE=No abuse

Table 5. Mean scores on the DES according to reported history of sexual and physical abuse stratified by age of first abuse

Age	Sexual abuse		No sexual abuse		p	Physical abuse		No physical abuse		p
	N	M±S.D.	N	M±S.D.		N	M±S.D.	N	M±S.D.	
Overall	20	19.33±13.42	46	10.78±13.44	0.030*	27	16.82±15.71	39	10.93±12.52	0.110*
>16	11	18.66±16.82	46	10.78±13.44	0.032**	14	15.02±10.46	39	10.93±12.52	0.158**
12~16	4	21.83±8.67				3	12.47±4.54			
7~11	2	27.55±14.35				7	23.00±26.70			
<7	3	12.43±10.60				3	15.33±11.84			

DES=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Mean±S.D.)

*after paired t-test

**after Kruskal-Wallis test

Table 6. Mean scores on the DES according to frequency of abuse

Frequency	Sexual abuse*		Physical abuse**	
	N	M±S.D.	N	M±S.D.
1	6	21.07±9.28	0	
2~3	4	9.87±9.85	1	9.60±0.00
4~9	4	37.65±15.25	6	16.93±9.00
10<	6	11.42±7.48	20	17.17±17.68

DES=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Mean±S.D.)

*p<0.05(after Kruskal-Wallis test)

**Non-Significant(after Kruskal-Wallis test)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대를 처음 당한 나이별 DES점수는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7~11세군, 7세 이전군, 16세 이후군, 12~16세군 순서로 높은 경향을 보여 학대당한 나이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학대횟수와 해리증상과의 관계를 보면 성적 학대를 한번 당한 경우 21.07±9.28, 2~3번 9.87±9.85, 4~9번 정도로 횟수를 셀 수 있는 정도가 37.65±15.25,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가 11.42±7.48로 횟수와 해리경험척도와는 일관된 관계를 보인다 할 수 없어, 한 번의 학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번 학대가 그보다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한 번 당한 경우는 없었고 2~3번 당한 경우보다 여러번 당한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6).

학대당한 기간과 해리경험척도는 성적 학대의 경우 횟수를 셀 정도의 몇번의 학대일 때 22.61±15.16. 반복 학대가 1년 이상 10년 이내였던 경우 7.42±3.76, 10년 이상에 걸쳐 반복된 경우 19.40±6.79로 횟수가 기억나는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더 견디기 어려운 대상에 의한 또한 어린 나이에 당했던 경우가 많아서일

Table 7. Mean scores on the DES according to duration of abuse

Duration (year)	Sexual abuse*		Physical abuse**	
	N	M±S.D.	N	M±S.D.
<1	14	22.61±15.16	6	13.18±5.37
1~10	4	7.42±3.76	11	18.77±23.30
10<	2	19.40±6.79	10	16.91±8.85

DES=Dissociation experiences scale (Mean±S.D.)

*Non-Significant(after Kruskal-Wallis test)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된 경우는 학대기간이 긴 경우 DES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기간에 따른 DES점수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Table 7).

마지막으로 학대를 당한 시기와 현재 검사당시와의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보면 1년이 안된 경우 21.76±17.00, 1년 이상 10년 이내 19.74±21.17,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15.11±11.20으로 학대당하고 시간이 경과했을수록 해리경험척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Kruska-Wallis test, H=0.75).

고 찰

본 연구는 외래환자의 높은 학대경험율을 나타냈다. 즉 대상환자 66명의 54.5%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13.6%가 성적학대, 24.2%가 신체적 학대, 16.7%가 성적 및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여자 정신과 입원환자의 76.8%가 신체적 및 성적 학대경험이 있었다는 보고¹²⁾보다 낮은 율이었으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에서의 보고보다 낮은 율이었으나 상당히 높았다. 즉 Hutchings와 Dutton(1993)⁵⁰⁾은 122명의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한 외래여자환자의 59%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

였으며, Waldinger 등(1994)¹¹⁾은 정신과 외래여자환자의 65%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의 학대경험이 적다 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피해를 학대로 느끼는 정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더 낮거나, 더 많이 숨기려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⁹⁾⁽¹²⁾와 비교해볼 때 미국에서의 보고¹¹⁾처럼 외래환자에서보다 입원환자에서 학대당한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19.7%가 16세 이전 신체적 학대를, 13.6%가 16세 이전 성적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아동기 학대가 50.7%라는 보고¹²⁾보다 낮아 외래 환자보다 입원환자가 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다고 하겠다. 미국에서의 연구들을 대상군에 따라 보면, 정신과 외래여자환자의 23%가 18세 이전 성적 학대, 34%가 18세 이전 신체적 학대를 당했음을 보고한다고 하였으며¹³⁾,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4.7%가 15세이전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¹⁴⁾. 또한 인격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7%가 18세 이전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며¹⁵⁾, 정신과 입원환자 중 16세이전 신체적 및 성적학대를 76%가 당했다고 한 보고¹⁶⁾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군, 외래 환자, 입원환자순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학대가 정신병리와 관계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하겠다.

해리는 DSM-IV³²⁾에 의하면 “의식, 기억, 주체성, 외부환경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통합기능의 와해”로 정의된다. 해리 현상은 정상인이 일상생활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자아 상태의 변화에서부터 정신내부에서 인격의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까지 다양하며, 해리는 전디기 어려운 감정적 혼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져 왔다³³⁻³⁶⁾. 이로 미루어 해리증상이 학대당한 경우 많이 나타남은 추측이 가능하며,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비경험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 점수는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와 16세이전 학대 경우 더 높았으며 이 역시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된 소견이다. 이는 해리가 아동기 성적 학대를 당할 때 압도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소견이라 하겠

다. 즉 해리증상 척도가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나 해리장애의 증상은 다르나 심한 외상을 처리하는 방어 기제에 따라 증상만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외상 경험과 상처를 비밀로 둠으로써 회상해서 오는 상처를 피하려 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피하려 한다³¹⁾고 한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Briere와 Runtz(1988)¹⁴⁾는 278명의 여자 대학생에서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해리증상이 높다고 하였다. 그들은 Hopkins Symptom Checklist에 해리 척도를 추가하여 해리현상을 측정하였고, 자기기술 질문지로 성적학대의 경험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나이, 부모에 의한 근친상간, 학대기간이 해리증상과 관계있으며, 학대당한 나이와 해리현상은 관계없다고 하였다. 그외 대학생에서 DES점수와 아동기나 청소년초기에 겪은 예측하지 못한 신체적 폭력이나 스트레스정도가 관계가 있다고 한 보고³⁷⁾, 502명의 일반인에서 해리장애 면담 스케줄을 이용하여 조사한 해리증상들이 아동기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 더 높다고 한 보고⁵¹⁾도 있었다. 또한 Singer 등(1995)⁵²⁾은 청소년기에 폭력에 노출될 경우 단지 폭력당하는 장면을 보기만 한 경우일지라도 해리증상을 포함한 우울, 분노, 외상후 스트레스, 총 외상등 정신과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해리경험이 성적 학대와 병적인 가정환경사이의 어떠한 상호관계에 의한 것일 수 있겠다고 한 보고⁴¹⁾도 있었다.

그리고 해리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에서 아동기외상이 경계선 인격장애 정신병리보다 해리증상과 더 관계있다는 연구¹⁷⁾. 다중인격장애환자에서 아동기 학대와 성인기 해리증상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³⁸⁾도 있었다. 정신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는 Chu와 Dill(1990)³⁹⁾은 DES와 생활경험질문지를 이용하여 신체적 및 성적 학대가 성인기 해리증상과 관계있으며,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다 겪은 경우 가장 심하다고 하였고, Sanders와 Giolas(1991)⁴⁰⁾는 입원 한 47명의 청소년 환자에서 DES점수와 아동기 학대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지로 조사한 결과 DES점수가 병록지에 기록된 학대에 관한 기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보고한 신체적 학대나 처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외 정신과입원환자에서 해리증상이 높으면 어린 시

기애 학대를 당했을수록 해리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⁵³⁾. 정신과 입원환자의 DES점수가 25점이상인 경우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율이 높다⁴⁸⁾고 한 연구도 있었다. 국내에서는 연규월과 우행원(1995)¹²⁾이 16세 이전 학대의 경우 가장 해리증상이 높으며 16세 이후의 학대 경험군의 해리점수 역시 비경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나 16세 이전 학대 경험군보다는 낮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Waldinger 등(1994)¹¹⁾은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을수록 해리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저자는 성인기 강간피해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해리경험척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을 보고¹³⁾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학대를 당한 경우 학대 비경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해리증상척도를 보여 25점 이상이 학대 비경험군은 3.3%인데 반해 학대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경우는 매우 높아 전체 학대군의 27.8%(성적 학대군의 44.4%)였으며 7세 이전을 제외하고 어린 나이 일수록 DES점수가 더 높았다. 7세 이전의 성적 학대의 경우 성인기 성적 학대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수가 적어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대상환자 3명의 경우 그러한 성적 학대를 큰 어려움없이 서술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도 상당히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등 상당부분에 대하여 치유과정을 가졌을 가능성과, 본 연구에서 학대사실의 조사는 대상환자의 기억에 있는 실제 학대만으로 실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억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은 어릴 때 학대를 당했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체적 학대경우는 일관성이 없어 학대당한 시기는 신체적 학대보다 성적 학대의 경우 더 중요하다 하겠다(Table 5).

또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는 성적 학대를 당한 군이 학대를 당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p < .05$)를 보였고 신체적 학대군은 높기는 하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평균점인 31.3점 이상을 보인 경우가 학대 비경험군에서는 없고 성적 학대군의 22.22%, 신체적 학대군의 12.50%,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의 9.09%에서 보여 학대경험이 해리증상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증상정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의 해리증상정도가 덜 심했는데 이 군에 속한 학대경험환자의 특성이 대부분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로 학대당한 시기가 성인기라는 점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학대당한 기간과 DES점수와의 관계를 보면,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는 기간이 길 때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기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적 학대기간이 해리척도와 관계있다는 보고¹⁴⁾,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을수록 해리증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보고⁵³⁾와 일치되는 소견이라 하겠다.

학대당한 횟수와 DES점수는 일관된 관계를 보인다 할 수 없었으며 한 번의 학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수도 있고 여러번 학대가 그보다 덜 영향을 줄수도 있음을 보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여러번 당한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6). 이는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당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반복 당한 경우 더 심한 정신파적 문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한 번의 강간만으로도 매우 심한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연구¹⁵⁾와, 더 잦은 신체적 학대는 더 높은 DES점수를 보인다는 보고⁵³⁾와 일치하나, 강간피해자를 대상으로 alexithymia조사에서 강간 피해의 횟수가 많을수록 alexithymia가 더 심했다⁵⁴⁾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소견이었다.

마지막으로 학대당한 시기와 DES점수는 본 연구에서는 학대당하고 시간이 경과했을수록 DES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강간당한 후 회복되는데 수개월에서 8년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보고⁵⁵⁾, 1/3이 회복되는데 수개월, 1/2이 수년, 4~6년후 74%만이 회복되어 있었는 보고²¹⁾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며 이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학대당한 시기와 해리증상정도는 어떠한 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학대, 특히 성적 학대를 아동기에 당한 경우 DES점수가 유의하게 높으나, 학대당한 기간, 횟수, 마지막 학대후 경과시간과 어떠한 유의한 관계를 볼 수는 없었다. 또한 박제민 등⁴⁷⁾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DES점수가 높다고 한 점을 고려해 볼때,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군의 나이가 더 어리고 학력이 더 낮은 경향이 있어 이것이 일부 DES점수를 높게 한 하

나의 요소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DES의 표준화가 되면 이의 변수를 고려한 DES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된다.

요약

저자는 신체적 및 성적 학대와 해리증상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정신과 외래를 초진방문한 여자환자 66명의 학대경험 및 DES점수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정신과 외래여자환자 66명중 54.5%가 학대당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13.6%가 성적 학대, 24.2%가 신체적 학대, 16.7%가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당했었다고 하였다.

2)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군의 DES점수는 18.6 ± 16.3 으로 비경험군의 7.09 ± 7.10 에 비하여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3) 학대양상에 따른 DES점수는 성적 학대군의 척도가 가장 높고, 신체적 학대군,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의 순서로 높았다.

4) 해리장애 진단의 절단점으로 생각되는 DES점수 25점이상은 성적 학대군 44.4%, 신체적 학대군 18.8%, 신체적 및 성적 학대군 18.2%에 반해 학대비경험군은 3.3%였다.

5) 처음으로 학대당한 시기에 따른 DES점수는 성적 학대 경우 7세 이전 학대군을 제외하고는 어릴 때 당했을수록 높은 척도를 보였으며, 신체적 학대는 학대당한 시기와 관계없었다.

6) 성적 학대당한 횟수와 DES점수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신체적 학대는 횟수가 많은 경우 DES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으로 보아 학대경험은 해리증상발생과 관계있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성적 학대가 더 관계있다 하겠다.

References

- 1) Carmen EH, Rieker PP : *A Psychosocial Model of the Victim-to-Patient Proces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89 ; 12 : 2 : 431-443
- 2) Gelinas : *The persisting negative effects of incest*.

Psychiatry 1983 ; 46 : 312-332

- 3) Herman J :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incestuous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Therapy* 1983 ; 5 : 81-91
- 4) Herman JL : *Trauma and recovery :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1992
- 5) Meiselman KC : *Incest : A psychological study of causes and effects with treatment recommendations*. SanFrancisco, Jossey-Bass, 1978
- 6) Rush F : *Best kept secret : Sexual abuse of childre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0
- 7) Carmen E, Rieker P & Mills T :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4 ; 141 : 378-383
- 8) Bryer J, Nelson B, Miller J & Kroll P : *Childhood sexual and physical abuse as factors in adult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7 ; 144 : 1426-1430
- 9) 연규월 · 우행원 :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 – 예비적 연구. *이화의대지* 1994 ; 17 : 205-212
- 10) Surrey J, Swett C, Michaels A, Levin S : *Reported History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severity of symptomatology in women psychiatric outpatients*. *Amer J Orthopsychiatry* 1990 ; 60 : 3 : 412-417
- 11) Waldinger RJ, Swett C, Frank A, Miller K : *Levels of dissociation and histories of reported abuse among women outpatien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94 ; 182 : 11 : 625-630
- 12) 연규월 · 우행원 : 소아기 신체 및 성학대와 정신증상과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1995 ; 34 : 6 : 1839-1849
- 13) 김종원 : 성인기 강간피해자의 정신과적 문제. *이화의대지* 1996 ; 19 : 2 : 173-183
- 14) Briere J, Runtz M :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in nonclinical adult sample*. *Child Abuse Negl* 1988 ; 12 : 51-59
- 15) Browne A, Finkelhor D :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 Bull* 1986 ; 99 : 66-77
- 16) Hall RC, Tice LT, Bersford TP, Wooley B, Hall AK : *Sexual Abuse in Patients with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Psychosomatics* 1989 ; 30 : 1 : 73-79
- 17) Herman JL, Perry CJ, van der Kolk BA : *Childhood trauma in borderline personality*. *Am J Psychi*

- atry 1989 ; 146 : 490-495
- 18) Shapiro S : *Self-mutilation and self-blame in incest victims.* Am J Psychother 1987 ; 41 : 46-54
 - 19) Coons PM, Milstein V : *Psychosexual Disturbances in Multiple Personality : Characteristics, Etiology, and Treatment.* J Clin Psychiatry 1986 ; 47 : 3 : 106-110
 - 20) Links PS, van Reekum R : *Childhood sexual abuse, parental impairment and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1993 ; 38 : 7 : 472-474
 - 21) Putnam FW, Guroff JJ, Silberman EK, Barban L, Post RM : *The clinical phenomenology of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 Review of 100 cases.* J Clin Psychiatry 1986 ; 47 : 285-293
 - 22) Ross CA, Norton GR, Wozney K :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 An analysis of 283 cases.* Can J Psychiatry 1989 ; 34 : 413-418
 - 23) Spiegel D : *Multiple personality as 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 Clin North Am 1984 ; 7 : 101-110
 - 24) Terr Lenore C : *Childhood Traumas : An Outline and Overview.* Am J Psychiatry 1991 ; 148 : 1 : 10-20
 - 25) Bettelheim B : *The individual and mass behavior in extreme situations.* In *Surviving and other essays.* New York, Harcourt, 1979
 - 26) Jacobson E : *Depersonalization.* J Am Psychoanal Assoc 1977 ; 7 : 581-609
 - 27) Krystal H : *Massive psychic trauma.*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9
 - 28) Noyes R, Kletti R : *Depersonalization in response to life-threatening danger.* Psychiatry 1977 ; 18 : 375-384
 - 29) Noyes R, Slymen DJ : *The subjective response to life-threatening danger.* Omega 1978-79 ; 9 : 313-321
 - 30) Noyes R, Hoenk PR, Kupperman BA : *Depersonalization in accident victims and psychiatric patients.* J Nerv Ment Dis 1977 ; 164 : 401-407
 - 31) Coons PM, Bowman ES, Peellow TA, Schneider P : *Post-Traumatic Aspects of Victims of Sexual Abuse and Inces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989 ; 12 : 2 : 325-335
 - 3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 33) Bernstein MA, Putnam FW : *Development, reliabi-*
 - lity and validity of a dissociation scale.* J Nerv Ment Dis 1986 ; 174 : 727-735
 - 34) Braun G : *Towards a theory of multiple personality and other dissociative phenomena.* Psychiatr Clin Am 1984 ; 7 : 171-193
 - 35) Kirshner LA : *Dissociative reactions : An historical review and clinical study.* Acta Psychiatr Scand 1973 ; 49 : 698-711
 - 36) Bowman ES, Blix S, Coons PM : *Multiple personality in adolescence : Relationship to incestuous experiences.* J Am Acad Child Psychiatry 1985 ; 24 : 109-114
 - 37) Sanders B, McRoberts G, Tollefson C : *Childhood stress and dissoci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Dissociation 1989 ; 2 : 17-23
 - 38) Ross CA, Anderson G, Herber S, Norton GR : *Dissociation and abuse among multiple personality patients, prostitutes, and exotic dancers.* Hosp Community Psychiatry 1990 ; 41 : 328-330
 - 39) Chu JA, Dill DL : *Dissociative symptoms in relation to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Am J Psychiatry 1990 ; 147 : 887-892
 - 40) Sanders B, Giolas MH : *Dissociation and childhood trauma in psychologically disturbe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991 ; 148 : 50-54
 - 41) Nash MR, Hulsey TL, Sexton MC, Harralson TL, Lambert W : *Long-term sequelae of childhood sexual abuse :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psychopathology, and dissociation.* J Consult Clin Psychol 1993 ; 61 : 276-283
 - 42) Dickes R : *The defensive function of an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 A hypnoid state.* J Am Psychoanal Assoc 1965 ; 13 : 356-403
 - 43) Silber A : *Childhood seduction, parental pathology, and hysterical symptomatology : The genesis of an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Int J Psychoanal 1979 ; 60 : 109-116
 - 44) Finkelhor D : *Child sexual abuse :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 Press, 1984
 - 45) Sedney MA, Brooks B : *Factors associated with a history of childhood sexual experience in a non-clinical female population.* J Am Acad Child Psychiatry 1984 ; 23 : 215-218
 - 46) Swett C, Surrey J, Cohen C : *Sexual and physical abuse histories and psychiatric symptoms among male psychiatric outpatients.* Am J Psychiatry 1990 ; 147 :

632-636

- 47) 박제민 · 최병무 · 김명정 · 한홍무 · 유승윤 · 김성환 · 주영희 : 한국어판 해리경험척도의 표준화 연구(Ⅰ). 정신병리학 1995 ; 4 : 1 : 105-125
- 48) Saxe GN, van der Kolk BA, Berkowitz R, Chinman G, Hall K, Lieberg G, Schwartz J : *Dissociative disorders in psychiatric inpatients*. American J of Psychiatry 1993 ; 150 : 7 : 1037-1042
- 49) Margo GM, McLées EM : *Further evidence for the significance of a childhood abuse history in psychiatric inpatients*. Comprehensive Psychiatry 1991 ; 32 : 4 : 362-366
- 50) Hutchings PS, Dutton MA : *Sexual assault history in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clinical population*. 1993 ; 29(1) : 59-63
- 51) Ross CA, Joshi S : *Schneiderian symptoms and childhood trauma in the general popula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1992 ; 33 : 4 : 269-273
- 52) Singer MI, Anglin TM, Song LY, Lunghofer L : *Adolescents'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symptoms of psychological trauma*. JAMA 1995 ; 273 : 6 : 477-482
- 53) Kirby JS, Chu JA, Dill DL : *Correlates of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atients with physical and sexual abuse histories*. Comprehensive Psychiatry 1993 ; 34 : 4 : 258-263
- 54) Zeitlin SB, McNally RJ, Cassiday KL : *Alexithymia in victims of sexual assault : an effect of repeated traumatization?*. American J of Psychiatry 1993 ; 150 : 4 : 661-663
- 55) Nadelson CC, Notman MT, Zackson H, Gornick J : *A follow-up study of rape victims*. Am J Psychiatry 1982 ; 139 : 1266-1270
- 56) Burgess AW, Holmstrom LL : *Rape : Sexual disruption and recovery*. Am J Orthopsychiatry 1979 ; 49 : 648-657